

오피니언

다산포럼

정지창



들으면 들을수록 비위가 상하고 억지스런 느낌을 주는 말 가운데 하나가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경제용어다.

다. 그래서 경제관료들의 사전에는 '성장'만이 존재한다. 이것은 마치 세상의 모든 인간을 남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남성은 그냥 남성이고 여성은 비(非)남성으로

마이너스 성장의 시대

부르는 것처럼 부자연스럽다. "좋아졌네 좋아졌네 몰라보게 좋아졌네"만 노래하다 보니 "나빠졌네 나빠졌네"는 금기가 되고, 김추자의 '거지말이야'라는 노래는 '불신 풍조 조작'이라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던 시대의 살벌하고 폭력적인 사고방식을

이것은 또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우리 경제는 계속 성장해 왔으므로 앞으로

무한히 성장할 것이라는 맹목적인 확신을 전제로 한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 강을 세상의 유일한 강으로 알고 모든 강은 당연히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른다고 생각했으므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유프라테스강을 보고는 '강물이 거꾸로 흐른다'고 표현했다고 한다.

우리가 이처럼 경제 성장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것은 경제 성장이 필수록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은 의식의 여지가 없는 최고의 가치로서 우리의 사

고와 행동을 지배한다. 경제 성장을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그래야만 더 행복하고 신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다.

그러나 과연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는 성장하고 인간은 더욱더 행복해질까? 우리는 고대 이집트인들보다 더 현명하고 똑똑해질까? 우리는 그리스인보다 더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을까? 그러나

대보다 자주국방이 강화되고 사대주의는 약화되었을까? 조선시대보다 사회적 약자와 지역경제에 대한 배려는 나아졌을까? 일제시대보다 민족적 일체감과 공동체 의식은 더 강화되었을까? 그리고 1960년대보다 더 청정한 환경에서 언론의 자유를 더 많이 누리고 있을까? 농촌은 1970년대와 80년대의 새마을운동 이후 더 살기 좋아졌을까?

내가 궁금한 이런 쪽의 통계나 수치는 국책연구소나 대학에서 잘 연구하지 않고, 정치인이나 관료들과 언론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국가 신인도나 공무원의 청렴도, 행복 지수, 인권지표들은 왜 경제성장률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홍보되지 않는 것일까? 혹시 이런 지표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아니면 이런 지표들은 민생과 직접 관련이 없고 적법성이 의심되는 미디어법보다 홍보 가치가 적기 때문일까?

<영남대 특목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호남 광역경제권 사업 첫 단추 꿰지만

광주와 전남·북도를 아우르는 '호남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을 추진할 '선도산업 지원단' 출범식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오늘 거행된다.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개발사업이 본격화된 것이다.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프로젝트는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부품소재 등 2개 분야로, 동북아 태평양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서남해안 풍력산업 허브구축, 그리고 친환경 광기술기반 융합부품소재와 고효율·저공해·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부품소재산업 등 각각 2개 프로젝트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오늘 출범한 선도사업지원단은 앞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는 전·후방산업의 동반발전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호남 광역경제권 사업지원단의 출범을 지켜보는 우리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광역경제권 사업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두 개 권역으로 나뉠

영남권과 비교해 영·호남의 2대 1 불균형 심장이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영남 2개, 호남 1개의 광역경제권 개발계획대로라면 영남이 호남에 비해 2배 더 많은 선도산업과 선도 프로젝트를 지원받게 돼 영남 편중, 호남 소외 구도가 굳어질 수밖에 없다. 광역경제권 사업이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광역경제권 사업권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5+3 광역경제권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5+2 광역경제권의 불합리성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광역경제권 재조정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다.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속셈인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5+2 광역경제권을 고집하지 말고 최소한 '5+3'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농업보조금 개편 영세농 보호대책 세워야

논란을 빚었던 농업 보조금 개편의 윤곽이 잡혔다. 보조금 총액은 현행대로 5조2천억원대를 유지하는 대신 288개에 달하는 각종 보조금이 오는 2012년까지 100개로 통합된다.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1단계 활동을 마치고 내린 결론이다.

농어업 정책의 체계를 대수술하기 위해 출범한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보조금 총액을 현행대로 유지기로 한 것은 영세농가 보호를 위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농업보조금을 줄여 이를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겠다는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시의적절하다. 농업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각종 보조금 등으로 농민을 단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촌 인구 대부분이 고령화되면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전남의 농가소득은 9개 도(道)중에서 8

위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부채도 가구당 2천934만여원으로 5조5천 500억원에 달하고 있다. 1.5ha도 못 되는 경지를 갖고 농사를 짓는 전남 농가는 6만9천 가구로 37%나 된다. 10명 중 3~4명이 사실상 영세 농가로 볼 수 있는 셈이다.

내년부터 연구·개발(R&D), 교육·훈련, 컨설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확대된다. 그만큼 개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갑작스럽게 농업 보조금이 축소될 경우 전남의 영세 농가들은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우려가 크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도로서는 농가 지원에 한계가 있다.

농업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나 생산성 및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 농가들에 대한 보호대책도 세워야 한다. 농업의 규모화와 조직화를 무리하게 서두를 경우 가족농이 대거 퇴출당해 농촌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無等鼓

흥선 대원군 이하응(1820~1898)은 '쇄국' '용고집'의 이미지가 각인돼 있다. 조선 말기 철종이 후사(後嗣) 없이 죽자 왕실의 후사 결정권을 쥐고 있던 조대비는 종친인 이하응과 밀약을 맺고 그의 둘째 아들 명복을 세자로 삼는다. 이하응은 1863년 아들인 고종이 열두살의 나이로 즉위한 후 잠깐 동안 조대비의 수렴청정을 거쳐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대원군(大院君)이 되었다.

대원군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세도정치 청산이었다. 그는 이 전까지 조정을 쥐락펴락 하던 안동 김씨 일문을 축출했다. 이어 문벌과 사색당파를 배제한 인사등용을 단행했다. 또 47개 서원을

대원군을 상징하는 쇄국정책은 프랑스, 미국과의 충돌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불러왔지만 그는 이들을 모두 물리치고 적화비를 세웠다.

특히, 그는 양요가 일어났을 때 싸우지 않고 한양에서 도주한 양반은 이후 관리 임용에서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국가적 위기에서 보신에 급급했던 이들에게 상응한 대우를 한 것이다. 이른바 장악함으로써 대원군(大院君)이 되었다.

대원군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세도정치 청산이었다. 그는 이 전까지 조정을 쥐락펴락 하던 안동 김씨 일문을 축출했다. 이어 문벌과 사색당파를 배제한 인사등용을 단행했다. 또 47개 서원을

대원군의 탕평



만만 커질 뿐이다. 실라처럼 얹어있는 정국에서 단행될 이번 개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 말할 나위가 없다. 개각을 앞둔 시점에서 탕평에 힘쓰고 당쟁을 없애려 했던 대원군을 되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크다. /박지경 정치부장 unipark@kwangju.co.kr

기고

박흥수



우리 경제는 작년말 미국발 금융위기로 기업은 문을 닫고 소비는 극도로 위축되어 서민경제가 파탄에 이를 지경에 처해 있다. 이런 경기 불황속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우리의 아이들과 어른 신들일 것이다. 버려진 아이들, 홀로 쓸쓸이 살아가는 노인들, 심지어는 방치되고 학대받는 아이들과 노인들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시기에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서는 학대받고 버려진 아동과 노인들을 보호 및 치료,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아동복지재단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아동과 노인들에 대한 학대 및 방임 사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더욱이 얼마 전 통계청에 따르면 전남은 2010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발표되었다. 유엔(UN)은 65세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자

약자의 편에서 서로 돕고, 밝은 사회로 만들어 가야할 의무가 있다. 지난 연말 우리는 IMF 때보다 더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랑의 운동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을 지켜보았다. 비록 기업들의 기부는 줄었으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소액기부자들이 늘어 우리지역에서는 당초 목표액(46억8천만원)을 101%를 달성하여 우리의 사랑 나눔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아이들의 방임과 학대 사례는 2007년에는 245건이던 학대건수가 지난해에는 328건으로 현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노인들의 방임, 학대 사례 또한 2006년 312건, 2007년 335건, 지난해에는 36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것은 우리도가 농도임을 감안하면 신고되지 않은 방임 등 사례는 이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전남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다. 이들 기관에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나 관련 복지시설 수는 절대 부족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2007년에는 전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금년에는 전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하면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는데 뿌듯함을 느낀다. 앞으로 전남도의 아동과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과 재정지원이 가장 소중히 보살펴야 할 우리 아이들과 어른신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임을 감안하면 신고되지 않은 방임 등 사례는 이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생각된다.

칠순잔치·결혼식 피로연 등 '위조식권' 철폐를

며칠 전 큰아버님의 칠순잔치가 열려서 식권 카운터를 담당했는데 나중에 식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식비가 내가 썼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원래 이런 식당에서 연회를 할때는 카운터 편의상 조그만 스티커를 일장객 하나나 손등에 붙여준다. 우리도 식당측 직원이 담당했는데 나는 처음부터 후시나 싫어 다른 동생들 시켜 별도로 참석자 숫자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오차 범위 내에서 대략적인 하객의 숫자를 꿰고 있었다.

그런데, 식당측에서 제시한 식비는 내가 헤아린 숫자의 합보다 훨씬 많이 나왔고, 음료수나 술 등을 포함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후시나 하는 마음에 하객들이 제출한 식권 묶음을 가져다가 헤아려 보았다. 그런데 그 묶음 속에는 식권에 적은 도장의 인주가 선명치 못한 것들이 눈에 띄었다.

마치 선거가 끝난 후 개표결과를 놓고 진위여부를 확인하듯 일일이 다 세어볼 요량으로 식권 문지를 받아보고 행동을 취하자 결국 식당 쪽에서 "그냥 됐으니까! 그쪽에서 계산한 대로 합시다"라며 무마하려고 했다. 솔직히 말해서 위조 식권이 섞인 게 분명했다. 하지만, 다른 날도 아닌 잔치날에 그런 거 가지고 티격태격 하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맞춘 거라고 너무 간간하게 군다는 오해를 받을까봐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하는 걸로 계산을 마쳤다.

그러나 후시 이런 사례가 환간, 칠순잔치, 결혼식 피로연장 등에서 공공연히 알게 모르게 벌어지는 일이라면 그 식당측에서는 상당히 많은 돈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후시 잔치를 위해 식당을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애꿎은 피해를 입지 않을듯하다. ▲남상민·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NGO 칼럼

민점기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역사의 흔적을 지우는데도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2010년이던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0년이 됩니다. 광주는 광주다워야 합니다. 역사와 문화를 버리고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된 현대화를 뒤쫓으면서 오히려 낙후되고 뒤쳐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5·18이라는 상징이 비록 땅에 처럼 누르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펼쳐낼 것이 아니라 안고 가야 하는 것임이

일입니다. 세계와 교감하고 아시아와 소통하는 일, 광주는 5·18을 내세워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5·18사적지를 온전히 보존하고 지켜내면서 이루어져야 의의가 있습니다.

장장 눈앞의 이익, 화려한 청사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선거철 공약(公約)처럼 '공약(空約)'이 될지도 모릅니다. 비엔날레, 국제영화제 등을 통해 우리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실패한 원인은 운영의 잘못 등을 말할 수 있

5·18 살아있는 문화중심도시를 꿈꾸며

다. 이제 몇 남지 않은 5·18사적지를 지키고 가꾸면서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민주, 인권, 평화를 내세워야 합니다.

옛 전남도청 신본관(별관)은 80년 당시 시민군과 행정지도부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전남대 정문을 비롯하여 YWCA, 광주역, 들불야학, 상무대 등이 온전한 모습을 간직하지 못하고 사라지거나 자리를 옮겼거나 바뀌었습니다. 이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선다고 옛 전남도청 신본관을 허물겠다고 합니다.

광주의 문화, 그리고 미래는 누가 뭐라고 해도 5·18의 역사와 함께 가야 하며 5·18을 내세워야 합니다.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역사유산, 문화유산은 지금 까지 방치해왔고, 훼손해왔습니다. 그것이 광주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체가 5·18의 유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입니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문화전당 건립과 운영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채우는 일은 또 다른

지만 결국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재되어야 할 '그 무엇'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5·18로부터 나왔던 대중정신, 민주와 인권, 평화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켜나가야 문화중심도시 광주가 꿈꾸는 미래는 빛을 낼 수 있습니다. 막연한 개발과 국비와 민자유치를 통해 엄청난 자본이 투여될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가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옛 전남도청 신본관은 5·18의 역사와 정신, 가치를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지역 시민사회는 '원탁회의'를 통해 보존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가 남았습니다. 시도 민대책위원이 5월 단체는 목속의 신장을 때 문화전당에 기증하는 심정으로 '오월의 문'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진정으로 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원한다면 정부와 문광부는 '오월의 문'을 받아들이어야 합니다. <광주·전남 진보연대 상임대표>

바이오 에너지원 각광 '타피오카'에 관심을

얼마 전 태국에서 국제 타피오카 회의가 열렸는데 대성황이었다.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자 태국의 타피오카 수출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태국 정부가 타피오카를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국제 행사라고 한다.

국내에는 주로 전분이나 주정용, 혹은 사료용으로 일부 수입돼 왔는데 최근 국제 곡물값이 급등하면서 대체 사료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타피오카를 작물로서가 아니라 바이오 에너지원으로서, 또 새로운 대

체 식물 자원으로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 옥수수나 설탕이 석유를 대체하는 에탄올 생산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분용 곡물자원이 사료나 에너지 원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미래 청정자원의 확보와 개발을 위해서라도 동남아 여러 나라들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앞으로 농지활용에 더 신경을 써서 미래 곡물자원 확보를 위한 기본 동지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김석원·광주시 광산구 안창동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Table with columns for publication info: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